

(+) 대학생 후배들이 가끔 찾아오곤 하는데, 그들이 품고 있는 의문과 그에 대한 나의 답변, 대화의 말미에 一讀을 권하는 자료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해 보았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last updated: '08. 11. 25

[Introduction]

1. Life as a Businessman

- 1) vision, mission, job criterion
- 2) tasks, mood
- 3) daily life, leisure, HR development
- 4) achievement
- 5) regret

2. Job Application

- 1) prerequisite, open mind
- 2) resume, documents
- 3) interview

3. SK Telecom

- 1) Current status
- 2) Strategy

4. Etc.

- 1) Human N/W
- 2) Life Time Plan
ex) Marriage plan

1.~3.은 내가 직접 쓴 글, 혹은 나를 인터뷰 한 글.

1. SFERS Newspaper 인터뷰(최창규)_200802
2. SKT 자기 소개서(최창규)_200612
3. SKT 사보 기고문(최창규)_200604

4.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기고문: 대학생활에 대해 (1)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現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창용 교수님께서 서울대 경제학부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실 때 느끼신 바를 정리하셔서 학부/대학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고하신 글.

5. 서울대 경제학부 기고문(위험을 즐기는 삶을 선택하라) : 대학생활에 대해 (2)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내가 신입사원으로 입사(2006년) 했을 당시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의 부문장(전무)이셨고, 2007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현재 SK브로드밴드 사장으로 계시는 조신 박사님께서 출신 학과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소식지에 기고하신 글.

아래는 조 박사님께서 본인의 미니홈피에 직접 올린 서문.

- 글을 쓰면서, 조신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일년에 두 차례 "경제학부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동문 기고문을 하나씩 실는다고 한다. 동문들이 재학생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기고하는데, 다음 호에 원고를 써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기라성"같은 동문들도 많은데, 그리 내세울 것도 없는 내가 글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양하였으나, 다양한 직업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재삼 청하기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응락하는 수 밖에. 그리고 나서는 곧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며칠을 끙끙거리며 원고와 씨름하였다. 몇 년 만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글을 직접 쓰면서 다시 한 번 글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였다.

6. SKT 사내 게시판 기고문(나는 이런 직원이 좋다)

: 회사생활에 대해

송현종 SK텔레콤 전략조정그룹장, 서울대 경제학석사, MIT MBA

직장생활을 20년 가까이 하신 SK텔레콤 송현종 전략조정그룹장께서 사내 게시판에 직접 올리신 글.

7. Thinking like an economist: 경제학에 대해

Hal Varian 버클리대 교수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Microeconomics(미시경제학)의 저자이자, UC Berkeley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UC Berkeley의 MBA School인 Haas School of Business의 정보학과(School of Information) 교수이자, 현재는 Google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Hal Varian이 쓴 글.

그의 홈페이지(<http://people.ischool.berkeley.edu/~hal/>)에 가보면, 온갖 자량과 함께, 정보통신경제학과 관련한 좋은 Article 들을 많이 볼 수 있음.